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금융]
- CNBC: 미 경제와 주식시장은 왜 다른 모습일까?
- Bloomberg: SK 하이닉스, 미 공모가보다 16% 높게 거래

[뉴욕시]
- Bloomberg: 거의 최저 임금인 MTA 청소직에 지원자 몰렸다

[중동 전쟁]
- Bloomberg: 미국 “호르무즈 긴장에도 이란과 계속 협상”

[오일]
- CNBC: IEA “올해 원유 수요 일일 1백만 배럴 감소”

[트럼프 관세]
- WSJ: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인공 지능]
- TheEconomist: 중국 반도체 산업, 서구 따라 잡으려 전력 질주
- YahooFinance: 반도체 부족에 글로벌 PC 출하량 감소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델타, “높은 운임 유지한다”...실적도 좋아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금융]

CNBC: Why the stock market and economy may seem out of sync
미 경제와 주식시장은 왜 다른 모습일까?

-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며 주식시장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했다.
- 경제학자들은 인공지능(AI) 열풍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전체 증시를 끌어올렸다. 주식시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보다 기업의 미래 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투자자들은 AI 기업들의 향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기사

Bloomberg: SK Hynix Raises $26.5 Billion in Biggest Foreign Debut in US
SK 하이닉스, 미 공모가 보다 16% 높게 거래 시작

- SK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11시 35분 거래를 시작한 직후 공모가 149불보다 16% 정도 상승한 1백7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 당초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이 공모가 대비 21%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회사는 외국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장을 완료했다.
- 뉴욕 시장 개장 전 예상 가격은 주당 180달러로, 공모가 149달러보다 높게 형성됐다.
- 월가는 SK하이닉스 ADR(주식 예탁증서)이 서울 증시의 보통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교환 제한뿐 아니라 AI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의 강력한 지위에 대한 투자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주가 안정과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추가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다른 블룸버그 기사 https://www.bloomberg.cm/news/articles/2026-07-10/sk-hynix-open-to-issuing-more-us-shares-sk-group-chairman-says?srnd=homepage-americas

기사

[뉴욕시]

Bloomberg: The Near-Minimum-Pay Job That New Yorkers Wait Years to Get
거의 최저 임금인 MTA 청소직에 지원자 몰렸다

- 뉴욕시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MTA는 작년 2월 청소직 채용 당시 약 4만9천5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 지원자들은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고, 이후 MTA 내 더 높은 연봉의 직무로 승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청소직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직 시급은 20.89달러에서 시작해 최고 34.82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노조 소속 직원은 의료·치과·안과 보험료를 거의 부담하지 않으며, 근속연수와 급여를 기준으로 한 연금도 제공받는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US Says Iran Talks to Continue Despite Hormuz Skirmishes
미국 “호르무즈 긴장에도 이란과 계속 협상”

- 미국 당국은 미국과 이란은 최근 충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 미국은 여전히 이란과의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협상은 실무 협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카타르를 비롯한 중재국들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양국은 8월 중순까지 영구적인 평화 협정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협상에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기사

[오일]

CNBC: World oil demand set for first annual decline since 2020, IEA says
IEA “올해 원유 수요 일일 1백만 배럴 감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 세계 원유 수요가 전년보다 하루 10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오늘 금요일 전망했다.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원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 IEA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을 통한 원유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요 감소가 특정 지역과 석유 제품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 오일 시장 회복 가능성이 있으나 분쟁 본격시 전망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기사

[트럼프 관세]

WSJ 칼럼: How Trump’s Tariffs Really ‘Work’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 트럼프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기보다 기업 비용과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 2025년 1월 이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약 7만5천개 감소했으며,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만 2만5천9백개가 줄었다.
- 트럼프는 도요타의 텍사스 투자(36억 달러)를 관세 정책의 성과라고 했으나 도요타는 투자 이유로 관세가 아닌 텍사스의 우수한 사업 환경과 첨단 생산기술을 꼽았다.
- 또한 자동차 가격은 수입차는 5,000~8,900달러, 미국산 차량도 1,600~2,000달러 상승했다. 관세 부담은 외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대부분 떠안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도 투자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

[인공 지능]

TheEconomist: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is racing to catch the West’s
중국 반도체 산업, 서구 따라 잡으려 전력 질주

-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능성이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첨단 생산 기술에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 미국의 수출 규제 이후 중국은 자체 AI 칩 개발을 강화했고, 알리바바·바이두 등도 자체 칩 설계에 나섰다. 올해 중국 내 AI 칩 지출의 약 80%를 자국 기업이 차지할 전망이다.
-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약하다. 중국은 TSMC와 ASML의 핵심 기술 접근이 제한돼 7나노미터 이하 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렵다.
- 중국은 기술 개발로 격차를 좁히고 있지만,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여전히 미국 마이크론과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기사

YahooFinance: The PC market is headed for trouble, and you can blame the memory crisis
반도체 부족에 글로벌 PC 출하량 감소

- 글로벌 메모리 부족 사태가 기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세계 PC 전체 출하량이 4.9% 감소,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 시장조사업체 IDC는 현재까지 메모리 부족이 PC 업체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향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IDC는 메모리 공급난이 2028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2026년 하반기 PC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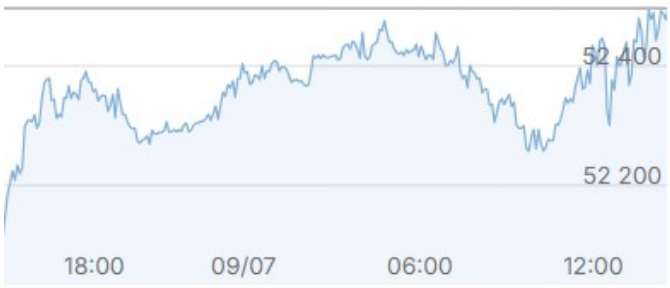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Delta expects higher airfare to last, bringing 2026 profit goal in reach, CEO says
델타, "높은 운임 유지한다"...실적도 좋아

- 델타항공은 연료비 상승분을 항공권 가격에 반영하는 가운데 올해 실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 CEO는 견조한 여행 수요와 항공업계의 공급 조절로 항공권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델타항공은 3분기 주당순이익(EPS)을 2.00~2.50달러, 연간 EPS는 6.50~7.50달러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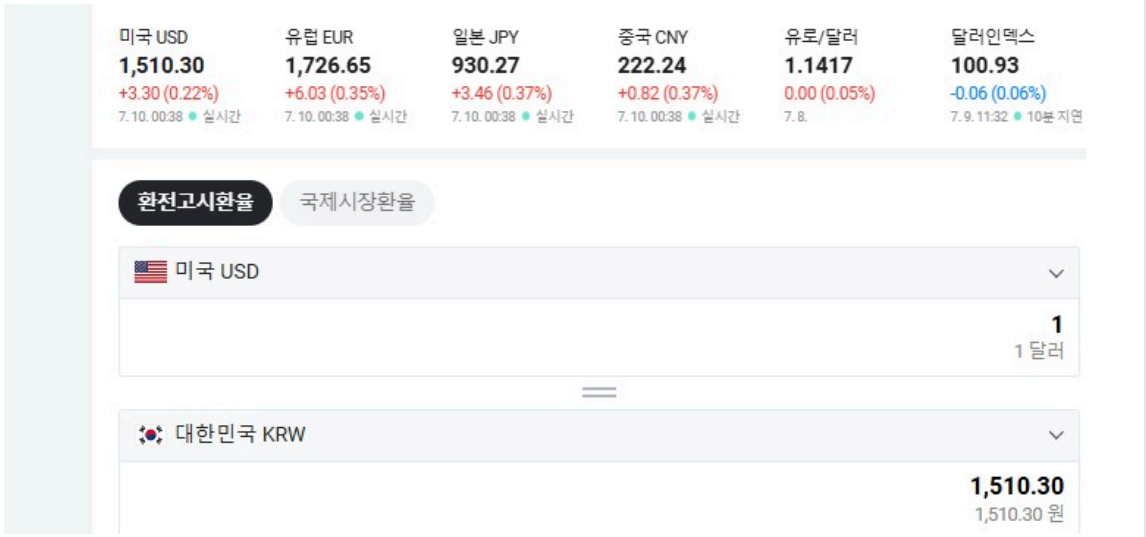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2,533.50	+185.4	+0.35%
US 500	7,528.60	+46.0	+0.61%
Dow Jones	52,524.85	+176.46	+0.34%
S&P 500	7,528.04	+45.33	+0.61%
Nasdaq	26,083.25	+212.60	+0.82%
S&P 500 VIX	16.16	-0.74	-4.38%
Dollar Index	100.71	-0.049	-0.05%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30-Year Bond	5	24/32	5.064
10-Year Note	4.375	2/32	4.553
7-Year Note	4.25	24/32	4.409
5-Year Note	4.125	2/32	4.286
3-Year Note	4.125	1/32	4.219
2-Year Note	4.125	1/32	4.185
1-Year Bill	0	-1/32	4.042
6-Month Bill	0	-1/32	3.928
3-Month Bill	0	-1/32	3.786
1-Month Bill	0	0/32	3.618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